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2 말레이시아 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안세영이 천위페이(중국)를 세트스코어 2-0으로 꺾고 우승을 확정짓고 기뻐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안세영, 천위페이 꺾고 '우승'

말레이시아 마스터즈 2-0 완승
코리아오픈 이후 3개월만
화순군청 정나은 여복 '동'

7전8기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에이스 안세영(삼성생명·세계랭킹 4위)이 천적 천위페이(중국·세계랭킹 3위)를 꺾고 말레이시아 마스터즈 우승을 차지했다. 안세영은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22 말레이시아 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결승에서 천위페이를 2-0(21-17 21-5)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제대회 우승은 지난 4월 코리아오픈 이후 3개월 만이며 올시즌 두 번째 우승이다. 무엇보다 천적 천위페이를 처음으로 이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안세영은 앞서 천위페이와 7번 만났으나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8번째 맞대결에서 드디어 승리를 거뒀다. 안세영은 그동안 탐랭커플들을 격파하는 이변을 자주 일으켰으나 유독 천위페이 상대

로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에서도 첫 경기인 32강에서 천위페이를 처음 만나 0-2로 패하는 쓴맛을 봤고 이후 국제대회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지난 5월 세계남녀단체전수권에서 한국 여자대표팀이 매치스코어 3-2로 중국을 물리치고 12년 만의 우승을 달성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안세영은 1단식 주자로 나서 천위페이에 1-2로 패했다. 지난해 2020도쿄 올림픽에서 부상 투혼으로 승승장구하던 안세영을 8강전에서 돌려세운 것도 천위페이였다. 하지만 안세영은 성장 중이었고, 천적과의 약전도 스스로 끊어내며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발휘했다. 이날 결승은 탐랭커플들의 맞대결답게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상 경기는 안세영의 압도적인 플레이로 승부가 갈렸다. 우승을 확정하기까지 3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안세영은 1세트에서 먼저 점수를 획득, 4-0으로 앞서면서 기본 좋게 출발했다. 천위페이는 1세트에서 먼저 점수를 내기 시작했고, 1세트 막판 18-17 1점차까지 따라 잡히기도 했으나 안

세영이 포인트를 때내면서 21-17로 1세트를 얻어냈다. 2세트는 더 압도적이었다. 안세영이 6점을 앞선 뒤에야 천위페이가 첫 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다. 천위페이의 실책이 이어진 틈을 놓치지 않은 안세영이 줄곧 앞선 끝에 2세트를 21-5로 마쳤다. 마지막 포인트 획득으로 우승을 확정 지은 안세영은 두 손을 번쩍 들며 짜릿한 승리를 만끽했다. 안세영은 8강과 4강을 폴세트 접전 끝에 넘어섰다. 8강에서는 태국 라차녹 인타는(세계 8위)에 2-1(13-21, 21-13, 21-12)로 역전승을 거뒀고 4강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튜중(31위)을 2-1(21-18, 13-21, 21-8)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천위페이는 준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대만 타이쯔잉을 2-0(21-13 23-21)으로 제압하고 안세영을 만났다. 여자복식 정나은(화순군청)-김혜정(삼성생명)은 동메달을 획득했다. 정나은-김혜정은 마쓰야마 나미-시다 지하루(일본)에 0-2(22-24 13-21)로 패해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최진화 기자

토틀넘, 프리시즌 투어 한국땅 밟았다

13일 서울서 '팀 K리그'

16일 수원서 스페인 세비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손흥민(30)의 소속팀 토틀넘이 한국을 찾았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이끄는 토틀넘 선수단은 2022-2023 프리 시즌 투어를 위해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한국 축구 최고의 스타 손흥민이 2015년부터 활약한 토틀넘은 국내 팬들에 가장 친숙한 해외 축구 클럽 중 하나다. 과거 이영표 강원FC 대표가 주전 풀백으로 활약했고, 현재 남자팀에 손흥민, 여자팀에 국가대표 미드필더 조소현이 뛰고 있는 것도 하다. 특히 손흥민이 5월 막을 내린

2021-2022시즌 EPL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오르며 적극적으로 도운 토틀넘 동료들도 국내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팬들의 큰 환영 속에 입국한 토틀넘 선수단은 이번 방한 기간 '쿠광플레이 시리즈'로 진행될 두 차례 친선 경기에 나선다. 1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맞붙고, 16일 오후 8시에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세비아(스페인)와 만난다. 토틀넘은 이번 한국 투어를 위해 손흥민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간판스타 해리 케인을 필두로 28명의 정예 멤버를 꾸렸다. 공격진에서 함께 활약한 데얀 콜루세비치, 루카스 모라, 미드필더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 로드리고 벤타쿠르, 올리버스

킵, 수비수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로얄, 주전 골키퍼이자 주장인 위고 로리스 등 주축 선수들이 대거 참가한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영입된 공격수 히사롤리송과 미드필더 이반 페리치치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히사롤리송은 EPL 에버턴 소속이던 지난달 초 브라질 대표팀의 일원으로 한국과 원정 친선 경기를 치른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다시 방한했다. 시즌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 각종 일정을 소화하던 손흥민도 선수단에 합류, 토틀넘 유니폼을 입고 국내 팬들 앞에서 경기를 펼친다. 토틀넘은 경기에 앞서 11일 오후엔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유소년 클럽을 열고, 공개 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FC 아론·엄지성, K리그2 25R 베스트11

광주FC 아론과 엄지성이 하나원큐 K리그2 2022 25라운드 주간베스트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8일 K리그 데뷔골을 기록한 아론과 시즌 5호 골을 득점한 엄지성을 주간 베스트11에 선정했다. 광주는 지난 5일 부천FC와의 홈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광주는 이날 승리로 승점 50 고지에 선착함과 동시에 2위 대전과의 격차를 9점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올 시즌 두 번째 주간베스트11에 이름을 올린 아론은 탄탄한 대인방어와 수비는 물론,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크로스를 선보이는 등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전반 12분, 이오편의 날카로운 프리킥을 득점으로 연결하며 당당히 K리그 데뷔골을 신고했다. 미드필더 부문에 이름을 올린 엄지성은 전반 27분 마이키의 적극적인 압박과 간절한 패스를 정확하게 이어받아 상대 골망을



아론 엄지성

흔들었다. 또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과 정확한 크로스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주간베스트11은 한석희(전남), 손석용(김포·이상 FW), 엄지성, 마사(대전), 윌리안(대전), 송승민(충남아산·이상 MF), 민준영(대전), 김중민(김포), 아론, 이후민(전남·이상 DF), 손정현(경남·GK)이 선정됐다. 베스트팀은 김포, 베스트매치는 전남과 경남 경기다. /조혜원 기자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목포대, 남대 B그룹 우승

목포대학교가 최근 2022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 남대 B그룹에서 3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목포대는 한국대학배구연맹이 주최하고 대학배구연맹과 고성군배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 모든 경기에서 폴세트 접전 끝에 승리, 7년 연속 남대 B그룹 우승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마지막 우석대와 경기는 한종운(3년)이 21점, 오준영(4년)이 19점, 김동찬(4년)이 13점을 올리는 삼각편대의 활약이 돋보였다. 목포대는 세트스코어 3-2



목포대학교가 최근 2022 대한항공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에서 남대 B그룹 우승을 차지했다. /목포대 제공

(21-25, 26-24, 19-25, 25-19, 15-9)로 승리하며 대회 정상에 올랐다. 한종운이 최우수선수상을 받았고, 조두빈은 세터상, 최현성은 리베로상, 이주영은 블로킹상을 받았다. 이인환 코치는 최우수 지도상을 수상했다. /최진화 기자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경기 김장우 세단뛰기 대회신 우승

장흥군청 김장우(23)가 세단뛰기 개인 최고기록을 수립했다. 김장우는 지난 8일 강원도 고성에서 막을 내린 2022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경기 대회 남자 세단뛰기에서 16m78로 우승했다. 대회신기록이자 김장우 개인 최고기록이다. 김장우의 이전 최고기록은 16m73이었다. 김장우는 2차 시기에서 15m86으로 몸을 풀었고 3차 16m41, 4차 16m58을 기록했다. 그리고 5차 시기에서 기록이 나왔



장흥군청 김장우(가운데)가 지난 8일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2022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남자 세단뛰기에서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전남체육회 제공

다. 김장우는 16m78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위는 유규민(익산시청·16m13)이 차지했다. /최진화 기자

KIA 이승재·김도현·김선우·이인한 퓨처스 올스타 출전 선수 명단 확정

KIA 타이거즈 투수 이승재(22)와 김도현(22), 포수 김선우(21), 외야수 이인한(24)이 4년 만에 개최되는 2022 퓨처스 올스타전 대표로 나선다. KBO는 오는 15일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2022 KBO 퓨처스 올스타전 출전 선수 명단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퓨처스 올스타전은 북부리그 올스타(LG, 고양, 두산, SSG, 한화)와 남부리그 올스타(상무, 롯데, NC, 삼성, KT, KIA) 대표로 각각 24명씩 총 48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또한 올 시즌 기준으로 입단 5년차 이하인 2018년 이후 입단한 선수들에 한해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출전 선수 명단에 있는 선수가 1군에 등록되더라도 퓨처스 올스타전 출전은 가능하다. LG의 이종범 감독이 이끄는 북부리그 올스타(1루 덕아웃, 선공)는 김영준, 이지강, 송찬의, 최현준, 김유민(이상 LG), 주승우, 노운현, 이재홍, 박주홍, 이주형(이상 고양), 김동주, 박성재, 송승환, 김대환(이상 두산), 신현민, 유호식, 조형우, 석정우, 임근우(이상 SSG), 이재민, 김기중, 허인서, 이원석, 유상

빈(이상 한화)이 명단에 올랐다. 이에 맞서 상무 야구단 박지왕 감독이 이끄는 남부리그 올스타(3루 덕아웃, 후공)는 김기훈, 김형준, 니승엽, 최준우(이상 상무), 이강준, 김세민, 윤동희, 조세진(이상 롯데), 임지민, 하준수, 김현빈, 오정환(이상 NC), 황동세, 이병현, 박승규, 공민규(이상 삼성), 지명성, 권성준, 양승혁, 문상준(이상 KT)이 출전한다. 9일 현재까지의 기록을 기준으로 북부리그에서는 6승으로 승리 2위, 5.21의 평균자책점으로 이 부문 4위에 올라 있는 LG 투수 김영준과 타율 부문 1위(0.356)를 달리고 있는 SSG 내야수 석정우, 타점 2위(32타점)를 달리고 있는 고양 지명타자 이주형 등의 활약이 기대된다. 남부리그 마운드에서는 7승으로 승리 부문 공동 2위, 4.02의 평균자책점으로 이 부문 6위를 달리고 있는 KT 투수 지명성이, 타점 2위(40타점)를 달리고 있는 상무 포수 김형준과 타율 2위(타율 0.361)를 달리고 있는 KT 양승혁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혜원 기자